

退溪詩의 특징**

—溫柔敦厚에 대하여—

李 家 源*

• 目 次 •

序	Ⅲ. 憂國憐民
I. 道文一致	Ⅳ. 不專陶杜
Ⅱ. 薰陶德性	結

<요 지>

퇴계의 시는 유가 전통적 詩敎인 溫柔敦厚를 하나의 宗旨로 삼았다. 온유는 溫潤·和柔를 이룸이요, 돈후는 篤實함을 이룸이다.

시에에는 正과 變이 있으니 正音은 治世之音이요, 變은 衰世之音이다. 그러므로 유가에서는 온유적인 음으로써 인류사회를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 하며, 또 돈후는 衰薄한 民風을 醇樸·篤實한 방향으로 선도하는 立誠의인 寫實風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까닭으로 비분·격렬한 변조인 衰世之音을 숭상하지 않고 비분이 아닌 婉諭로, 격렬이 아닌 惻怛로써 거센 민심을 변화시켜 溫潤·和柔·篤實의 경지로 선도함에 妙諦가 있는 것이다.

퇴계가 처해 있던 시대환경은 屈平과 같은 조국의 淪亡이나 두보·백거이와 같은 민족적 대수난기도 아니요, 또 온유돈후적인 타고난 천품

* 전 성균관대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43호(1984) 게재논문

에다 순수·청명한 성정에 유출된 시는 한·중 수천 년에 주류로 내려오던 유가의 詩敎를 정통적으로 이어받는 동시에 새로운 이상과 새로운 격조로써 蔚然히 一家의 새 경지를 열었던 것이다.

序

퇴계(1501~1570)의 시는 대체로 朝鮮詩와 漢詩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퇴계의 순수한 조선시에는 한글 전용, 또는 韓·漢併綴로 된 시가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이에서 먼저 <陶山十二曲>¹⁾·<勸善指路歌>²⁾ 등 십여편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재래부터 한문학으로 표기된 시를 광의적으로 조선시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다. 그 하나의 물증을 든다면 정약용(1762~1836)의 兩句詩를 읊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³⁾

『나는 본시 조선 사람, 조선시 짓기를 달갑게 여기노라.』는 그 뜻은 아무리 異邦의 문학을 빌려 썼더라도 조선 사람의 민족적 정서, 사회적 환경, 시대적 사조 등 種種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제 퇴계의 韓·漢併綴의 시가문학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지난 1972년에 발표한 <퇴계의 시가문학 연구>⁴⁾ 중에서 상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이에서 贅言하지 않고 다만 專漢으로 표기된 시가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1) 《退溪先生全書》 <遺集> 권1 頁1~3

2)拙著 《韓國文學小攷》 頁66~72 참조

3) 《與猶堂全書》 권6 頁34 <老人一快事六首效香山體> 其5

4) 《退溪學研究》 (李退溪先生 四百周忌紀念論文集) 頁141~217

I. 道文一致

퇴계는 물론 하나의 시인이라기보다 철학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히 생각하진 않았다. 이는 유가의 大祖인 孔丘(前 552~479)로부터 이미 문학을 德行·言語·政事와 함께 四科를 설정하였고⁵⁾, 문학 중에서도 특히 시에 대하여 拳拳하였음은 《논어》에 나타난 것만으로서도 넉넉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일찍부터 유가의 전통적인 詩教를 이어 받아 《논어》의 『思無邪』⁶⁾와 《예기》의 『溫柔敦厚』⁷⁾를 시가의 종지로 삼았던 것이다.

如翰林別曲之類，出於文人之口，而矜豪放蕩，兼以褻慢戲狎，尤非君子所宜尚。惟近世有李龜六歌者，世所盛傳，猶爲彼勝於此，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而小溫柔敦厚之實也。⁸⁾

시에 있어서 퇴폐적인 『矜豪放蕩』이나 『褻慢戲狎』은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일종의 도피적인 『玩世不恭』도 올바른 길이 아님을 정확히 밝혔다.

또 퇴계가 처해 있던 16세기 초에 조광조(1482~1519)의 道學派와 남곤(1471~1527)의 詞華派의 대립은 종말에는 정치문제로 발전되어 도학파의 패배는 실로 비참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특히 문학에 있어서 道文一致의 이념을 지녀 과격했던 도학파의 좌절을 슬퍼하면서 끝까지 온유돈후의 正誼를 지켰으며 『학자로서 문장을 해득하지 못하여서는 아니됨』⁹⁾을 밝히었다.

5) 德行顧淵閔子騫冉伯牛仲弓 言語宰我子貢 政事冉有季路 文學子游夏. 《論語》<先進>

6)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論語》<爲政>

7) 溫柔敦厚 詩教也 《禮記》<經解>

8) 《退溪先生文集》卷4 頁23~24 <陶山十二曲跋>

9) 先生嘗曰·『辭達意而已 然學者不可不解文章 雖粗知文學未能達意於言辭.』《退溪先生言行錄》<良錄>

그러므로 韓儒들의 恒言에는 『퇴계는 「因文入道」라 하였으나 실에 있어서는 퇴계는 『文以明道』¹⁰⁾였다. 이에서 이른바 『道』는 《文心雕龍》에서 이른바 『천지의 耀光을 擒寫하고 생민의 이목을 깨우쳐 줌이다.』¹¹⁾가 곧 그것인만큼 결코 형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하나의 『有心之器』¹²⁾로서 形聲과 문장이 생성되는 실효를 거두어 金聲玉振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시는 《서경》 <舜典>에서 『詩言志』를 밝힌 이후 이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의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퇴계는 때로는 『言志』와 『言學』으로 나누어 서술하기도 하였다.

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¹³⁾

뿐만 아니라 퇴계는 그의 『言志』 중에서도 가장 먼저 『學』을 논하였음을 보아서 仕途를 버리고 학문의 길을 택한 퇴계의 詩境은 그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산십이곡> 제1곡에서 가장 밝게 나타났었다.

이런들 엇다흐며 더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믈며 泉石膏盲을 고태 므슴흐료¹⁴⁾

선비가 어려서 聖哲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경세의 사업을 이룩하는 것이 곧 참된 이치를 지닌 학문이다. 퇴계에게서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겠지만 다만 시대와 환경의 여하에 따라 출처가 결정되었을 뿐이다.

이에서 이른바 『이런』은 학문을 이룸이요, 『저런』은 벼슬을 이룸이

10) 知道沿聖以垂文 聖因文而明道. 劉勰撰 《文心雕龍》 <原道>

11) 寫天地之輝光 曉生民之耳目. <全上>

12) 形立則章成矣 聲發則文生矣. 未以無識之物 鬱然有彩 有心之器 其無文歟? <全上>

13) 上注(8) 참조

14) 《退溪先生全書遺集》 권1 頁1 <陶山六曲之一>

다. 당시 이씨왕조의 정치적 혼란으로 파생된 사회는 그 餘烈이 뜻있는 선비로 하여금 평소에 쌓았던 경세치용의 학문을 발휘할 겨를을 주지 않았다.

퇴계는 이러한 환경에 처하여 조광조의 至死不悔와는 달리 急流勇退의 길을 택하여 『憂中有樂』과 『樂中有憂』¹⁵⁾의 생애를 삼았던 것이다. 이에서 이른바 『憂』는 『憂道』·『憂國』이요, 『樂』은 『萬卷生涯』¹⁶⁾와 林園·山水의 樂을 이룸이다. 퇴계는 이와 같은 憂·樂이 서로 感發·融通하는 그 정서를 일체 시로써 표현하였으니 『凡有感於性情者, 每發於詩』¹⁷⁾가 곧 이를 의미함이다. 그러므로 퇴계의 시는 《도산전서》¹⁸⁾ 중에 실린 것이 2천여편을 넘칠만큼 풍성하여 종전의 학자 문집 중에서 보기 어려웠을 뿐아니라, 전문작가의 시집 중에서도 보기 드문 존재였다.

그러나 퇴계의 시를 총괄해 보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薰陶德性』이요, 또 하나는 『憂國憐民』이다. 이 『훈도덕성』에는 樂이 있고 『憂國憐民』에는 憂가 있게 마련이지만 다만 퇴계의 『憂國憐民』에는 지나친 비분강개이기 보다는 隱忍惻怛이다. 이는 퇴계가 처해 있는 시대환경이 초나라 屈平(前 343~前 290)이나 당나라 白居易(772~846)의 시대환경과는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퇴계에게는 굴평과 같은 流涕騷나 백거이와 같은 諷諭詩도 적었던 것이다.

II. 薰陶德性

퇴계는 이미 18세(1518) 때에 읍은 <野池>에서 천리가 유행할 때에

15) 《退溪先生年譜》 권3 頁9 <慕碣銘>

16) <陶山六曲>之二 <言學>의 第1曲

17) 上注(8) 참조

1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景印本

인욕이 틈탈 것을 비상히 경계하여 그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露草夭夭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¹⁹⁾

그 첫 귀에서는 비록 尋常한 寫景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理趣가 흘러 넘치는 표현이었고, 둘째 귀에서는 小塘의 청정무구한 活境으로써 마음 본체의 청명함에 비유하였고, 셋째 귀에서는 구름과 새는 비록 外物이지만 아무런 이러한 광명체에 해롭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대 자연 속에서 相管될 수 있는 物임을 인정하는 한편, 넷째 귀에서는 다만 제비가 淸淨·凝滯한 수면을 차고 지나치면서 물결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맑고 고요한 심체를 외물이 교란시킴에 비유한 것이다. 물론 위에 이른바 『지나치는 새』와 이에서 이른바 『물을 차는 제비』는 같은 새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그대로 지나치는 것과 물을 차는 것과의 거리는 실로 毫釐와 千里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그 지명의 제비실(燕谷)을 잘 원용하여 천리의 유행에 인욕의 侵擾를 잘 형용하였고, 興比의 古義에 알맞고 造句의 淸新은 독자로 하여금 정서를 감발시킴에 부적함이 없었다. 이것이 곧 『薰陶德性』의 묘체이며 못 사람들에게 妙感銘을 주는 소이었다. 여느 성리학자의 시가 흔히들 奧沙한 哲理를 포함한 동시에 그 표현이 너무나 樸而無華에 기울었으므로 독자를 얻지 못하는 것이 通患임에 비하여 퇴계의 이 시는 坦白·平易하였으므로 몇 세기를 내려오면서 퇴계의 學이나 시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이 편을 들곤 하였던 것도 잊지 못할 사실이다.

또 <步自溪上踰山至書堂>²⁰⁾ 一絶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화되어 『上下同流, 各得其所』의 妙를 나타내었다.

19) 《退溪先生言行錄》 권6 頁1 金誠一誤 『實記』. 《退溪先生文集外集》 중에서
는 『水涯』는 『碧坡』, 『怕』은 『恐』으로 되었음

20) 《退溪先生文集》 권3 頁29

花發巖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閒到山前問考槃。²¹⁾

<野池>가 청년기에 있어서 淵氷自懷의 심정을 간절하게 표현한 작품임에 비하여 이 편에서는 학덕이 崇深한 노교수의 風詠의 樂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當日의 風流樂事를 目擊·親炙한 得意的인 弟子 이덕홍(1541~1596)은 선생에게 『이 시에는 沂上의 樂이 있는 듯 싶습니다. 상하가 동류하여 제각기 그칠 곳을 아는 道妙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퇴계는 『비록 약간의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推獎해 말한다면 지나친 일일가 두렵노라.』하고 遜謝하는 뜻을 표하였던 것이다.

첫 귀의 『花發巖崖』는 태초의 蒼古한 본색을 그대로 지닌 巖崖에서 꽃이 피었음은 이미 靜中에서 저절로 生意가 盎然히 動함을 이룸이요, 『春寂寂』은 그 미동 속에서 다시금 靜으로 돌아옴을 이룸이었고, 둘째 귀의 『鳥鳴澗樹水潺潺』은 澗水에서 우는 새소리와 잔잔한 물소리는 비록 자연의 動的 神境에 그치는 듯싶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陶潛(372~427)의 이른바 『苦遭此物聒, 誰謂吾廬幽?』²²⁾의 意境과 다름 없이 動中靜이다. 그러나 이에서 이른 閒關한 새소리나 잔잔한 물소리는 저 매미 소리의 『聒』과는 결코 같지 않으니와 듣는 자의 感受에 있어서 杜甫의 『苦』와 퇴계의 『樂』은 차이점이 없지 않았다. 세·넷째 귀의 『偶從』이나 『閒到』는 一豪라도 『爲之之心』이 없이 『無所爲而然』의 경지에 이르렀으며²³⁾ 『携童冠』은 孔丘의 風詠의 樂²⁴⁾을 계승한 악사요, 『考

21) 又作一絕云··『花發巖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偶從山後携童冠 閒到山前看考槃。』德江問··『詩有沂上之樂 上下同流 各得其所之妙也。』先生曰··『雖略有此意思 推言之太過耳。』權斗經譯 <退陶先生言行通錄> 권3 頁32 <良錄>

22) <陶靖節集>

23) 時山花盛開 烟林明媚 先生詠杜詩··『盤渦鶯俗底心性 獨樹花發自分明。』德弘問··『此意如何。』曰··『爲己君子 無所爲而然者 暗合於此意思。學者須當體驗 正其誼 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 若少有爲之心 非學也。』<退陶先生言行通錄> 권3 頁32 <良錄>

槃』²⁵⁾은 새로 도산서당의 터를 발견하여 장차 藏修·育英의 새 機運을 마련하는 기쁨을 표현함이다.

퇴계시 중에서 『薰陶德性』적인 篇章은 대반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열거한 2편 밖에 <和陶集飲酒二十首>²⁶⁾ · <和老杜幽人>²⁷⁾ · <溪堂偶興十絶>²⁸⁾ · <正月二日立春>²⁹⁾ · <陶山雜詠>³⁰⁾ · <和子中閒居十二詠>³¹⁾ 등이 있으나 이루 다 들 수 없으므로 이에서 다만 이 2편을 들기로 하였다.

Ⅲ. 憂國憐民

퇴계의 『樂中有憂』는 오로지 憂國·憂道와 民不聊生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몇 가지의 예를 들기로 한다.

邇來寒燠苦不常， 饑荒疫癘民嗷嗷。
腐儒無策謾多憂， 聖上焦思精貫高。³²⁾

이는 <冬日甚雨而已大雪喜而有作> 중의 四句이다. 천재와 기근과 질병에 허덕이는 생민들을 구출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동시에 자신을 『腐儒』라 낮추었으며, 또 뒤에 『流民流民各歸業』의 一句를 보아서 이는 일

24) 莫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雲 詠而歸。

《論語》 <先進>

25) 考槃在澗 碩人之覺. 《詩經》 <衛風·考槃>

26) 《退溪先生文集》 권1 頁49~53

27) 全上 권2 頁1

28) 全上 권2 頁7~8

29) 全上 권2 頁11

30) 全上 권3 頁5~20

31) 全上 권3 頁21~26

32) 全上 권1 頁36~37. <冬日甚雨而已大雪喜而有作>

종의 流民歎이었고, <清明溪上書堂二首>³³⁾ 중에는 『儒家的 古道가 당시의 현실에 잘 조화되지 못하고, 남자의 수는 많지만 가치가 없음』을 개탄하였고, 또 『해마다 民俗은 곤경에 빠져 하소연할 곳이 없고 개개의 人情은 다 같지 않음』을 슬퍼하였다.

儒林道古難諧俗
 男子身多不直錢. (其一)
 年年民俗困無告
 箇箇人情嫌不同. (其二)

이에서는 憂道·憂國·憐民의 깊은 심경을 나타냈었다. 다만 隱憂와 惻怛에 그쳤으나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甚雨有感>³⁴⁾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 심각하였다.

后土瘡痍田卒菜, 農夫輟手相吁嘆.
 皆言水災甚旱災, 靡子非徒若雲漢.

이에서는 그 절박한 민생문제가 <시경> <雲漢>에서 표현한 『靡有孑遺』³⁵⁾에 지나침을 슬퍼하고, 그 말단의 二句에서는 자신 역시 여위고 병든 채 문을 닫고 드러누워서 愁眉만 찌푸림을 조금도 숨김이 없이 서술하였다.

一身羸癯百疾纏
 閉門飢臥愁眉攢.

또 <春寒記所見>³⁶⁾ 중의 末端 兩句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 비하여 더욱 절박하였다. 『妻子들을 이끌어 溝壑에 버리고자 하는 그 사정을

33) 全上 권1 頁5~6

34) 全上 권2 頁43~44

35) 周餘黎民 靡有孑遺. <大雅·雲漢>

36) <退溪先生文集> 권3 頁28

하늘에 하소연 해도 날으지 못하는』 것을 퇴계는 친히 목격하였음을 밝혔다.

携持婦子欲棄溝
仰訴蒼蒼那易羽?

또 <次答金龍宮舜學>³⁷⁾의 말단 兩句에서는 그 당시 혼란했던 사회상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君看競利人間者
不耻要錢子母商.

『그대는 이 세상에 金利를 다루는 자를 보았다. 子母錢 놀이하는 장수치 노릇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도다』의 뜻이다.

이 밖에도 <病懵>³⁸⁾ · <全義縣南行山谷人居遇飢民>³⁹⁾ · <四月初一日天安東軒>⁴⁰⁾ · <安谷驛苦寒憫行旅>⁴¹⁾ · <六月大雨水壞民田病中書事示黃仲舉>⁴²⁾ 등의 편은 모두 인민의 流離 · 淒苦한 爻象을 읊은 것이었다.

퇴계는 이와 같은 정치의 혼란과 사회의 퇴패상의 책임의 일체를 사람이 저야함을 밝혔다. 이제 그 <十八日朝晴感與>⁴³⁾ 중의 몇 귀를 들면 다음과 같았다.

奈何治日少, 奈何善人乏?
在天斯有時, 在人斯有責.
人能盡其責, 天時庶調燮.

37) 全上 권5 頁25

38) 全上 권1 頁25

39) 《退溪先生文集別集》 권1 頁11

40) 全上 권1 頁26

41) 全上 권1 頁18

42) 全上 권1 頁29

43) 《退溪先生文集》 권2 頁2

퇴계는 또 사람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衰世의 末士들이 古學을 전수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밝혔다. 그러므로 그 <三月三日雨中寓感>⁴⁴⁾에서는 『古學未傳皆末士』라 하였고 <東齋感事十絶>⁴⁵⁾에서는 『聲利와 俗尙에 얽매어 고금의 英傑도 몇 번이나 변천되어 수많은 가름길에 혼미하였음』을 슬퍼하였다.

聲利紛拏俗尙驅. 古今英傑幾遷渝?
無人更把楊朱淚, 洒向千歧萬轍衢. (其一)

이에서는 당시 학문의 길이 너무나 多端하여 올바른 길을 잃었음을 개탄하였다. 또 <泮宮>⁴⁶⁾에서는 국학인 성균관의 퇴폐적인 실태를 슬퍼해 마지 않았다. 반궁의 擧子들은 날마다 公堂에 배불리 먹고 유희만을 일삼아서 장래에 국가의 유용한 인재가 못될 뿐아니라 하나의 조소 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하였다.

泮宮隨例亦何爲? 日日公堂得飽嬉.
舉業生疎憑竄抹, 陳編寥落付唔咩.
多將閒事供嘲笑, 豈有懷材可設施?
昨夜夢中蝴蝶意, 曉牕和露寫新詩.

그 밖에 <和鄭子中閒居十二詠>⁴⁷⁾ · <秋日獨至陶舍篋中得趙士敬詩次韻見懷>⁴⁸⁾ 중에서도 역시 亂德의 侵淫과 學術의 多歧를 개탄하였다. 이제 끝으로 그 <記夢二節>⁴⁹⁾의 말단 양구를 이끌어 그 우국의 측달한 심경과 풍년을 기원하는 온유돈후의 詩敎를 밝혀 둔다.

44) 全上 권1 頁47

45) 全上 권3 頁1~2

46) 《退溪先生文集續集》 권1 頁1

47) 《退溪先生文集》 卷3 頁21~22 <講學>.

48) 全上 권3 頁35

49) 全上 卷3 頁5.

箇中憂國無餘事
長願年豐普得霖.

IV. 不專陶杜

퇴계의 시는 물론 陶潛과 杜甫에게서 받은 영향이 컸었다. 이제 그 시집 가운데 실린 2천여편 중에 陶杜에 가까운 理趣와 調格이 가장 많았던 것임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먼저 두보를 併學한 個所를 들어보기로 한다.

栗里賦成真樂志
草堂段罷自長吟.⁵⁰⁾
陶公止酒還思酒
杜老懲詩更詠詩.⁵¹⁾

퇴계는 일찍이 도잠의 <桃花源記> 중의 고사를 원용하여 순수한 조선 시 <淸涼山歌>⁵²⁾를 지었다.

淸涼山 六六峯을 아나니는 나와 白鷗-로다.
白鷗-야 엇더흐랴 못밧들손 桃花-로다.
桃花-야 물 따라 가디 마라 舟子-알가흐노라

퇴계는 도잠의 簫散·冲澹한 理趣를 좋아하였고 때로는 陶詩에 대한 和韻도 없지 않으니, 그 대표적 작품은 곧 <和陶集飲酒二十首>⁵³⁾였다.

50) 全上 권3 頁22 <吟詩>

51) 全上 권4 頁24 <丁卯踏靑日病起獨出陶山鵲杏亂發窓前小梅一樹皓如玉雪團枝可愛也>

52) 《退溪先生文集遺集》 <外篇>

53) 《退溪先生文集》 권1 頁49~53

그 말편 중의 후단을 읊어서 九原에서 환기하려는 심경을 말하였다.

卓哉柴桑翁, 百世朝暮親.
 湯湯洪流中, 惟子不迷津.
 同好陸修靜, 晚負廬山巾.
 安得酒如海, 喚起九原人?

그 밖에도 <栗里歸耕>⁵⁴⁾ · <栗里隱居>⁵⁵⁾ · <飲酒>⁵⁶⁾ · <次韻金道省三絕>⁵⁷⁾ 등의 편은 모두 도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작품이었고, 또 <도산서당>⁵⁸⁾에서는 『陶山』의 뜻을 『大舜親陶』에 이어 『淵明躬稼』에 취하였다.

두보에 관한 것으로서는 <和老杜幽人>⁵⁹⁾의 한편으로서도 족히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퇴계는 일찍이 두보의 『盤渦驚浴底心性, 獨樹花發自分明.』의 一聯을 읊었을 때 이덕홍이 그 詩義를 물었다. 퇴계는 『이는 爲己의 學을 하는 君子가 無所爲而然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 시의 의사와 暗合하거니와 학자는 마땅히 「正其誼不謀其利, 明其道不計其功.」⁶⁰⁾이라는 말을 체험해야 할 것이요, 만일 일호라도 爲之之心이 있어서는 학문이 아님⁶¹⁾을 밝혔다.

이제 綜論的으로 퇴계의 董陶弟子 정유일(1533~1576)의 기록에 의하면 『선생은 시 짓기를 좋아하되 陶·杜의 시를 즐겨 읽었다.』⁶²⁾ 하였다.

54) 全上 권2 頁28 <黃仲學求題畫十幅>

55) 全上 권3 頁44 <鄭子中求題屏畫八絕>

56) 全上 권3 頁25

57) 全上 권5 頁31~32

58) 全上 권3 頁11 <陶山雜詠>

59) 全上 권2 頁1

60) <漢書> <董仲舒傳>

61) 前注(23) 참조

62) 先生喜爲詩 樂觀陶杜詩. <退溪先生言行錄> 권6 頁14 <言行通述>

그러나 퇴계의 시는 오로지 陶·杜에만 전공하였음은 결코 아니다. 퇴계는 유가 詩敎의 嫡訣인 『은유돈후』를 본령으로 삼아 陶·杜는 물론 이요, 백거이·구양수(1007~1072)·소식(1036~1101) 등 諸家の 장점을 섭취하였고 『만년에는 더욱 주희(1130~1200)의 시를 좋아 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몹시 淸麗하였으나 뒤에는 점차 華靡함을 버리고 典實·莊重·簡淡으로 돌아갔었다.』⁶³⁾는 정유일의 기록도 있거니와 또 하나의 제자인 權應仁(1533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시학이 晚唐을 專尙하고 蘇詩를 束閣하였으나 퇴계는 「蘇詩가 어찌 晚唐에 미치지 못하겠는가.」 하고 蘇詩 읽기를 좋아하여 늘 「雲散月明誰點綴? 天容海色本淸淸.」의 두 귀를 외우기도 하려니와 그 시에 坡語를 쓴 것이 많았다.』⁶⁴⁾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를 통해서도 족히 퇴계의 시학은 陶·杜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結

시를 하나의 小技라 이르기는 하였으나 실에 있어서는 작가의 인품과 학문과 기상이 모두 이에서 나타나는만큼 결코 歇後히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시로써 一家의 위치를 굳게 구축하였다면 그의 천부적인 소질과 처해 있던 사회환경과 학문적인 조예에 따라 독특한 사상감과 독특한 형태의 작품이 產生되는 것이다. 퇴계의 시도 그러했던 것이다.

퇴계의 당시에나 後人으로서 퇴계의 시에 대한 논평은 이에서 이루

63) 晩年尤喜看朱子詩 其詩初甚淸麗 既而剪去華靡 一歸典實 莊重簡淡 自成一家. 全上

64) 今世詩學 專尙晚唐 閣束蘇詩 湖陰聞之 笑曰·「非卑也 不能也.」 退溪亦曰·「蘇詩果不逮晚唐耶?」 愚亦以爲 (中略) 若薄其爲人 則晚唐詩人賢於蘇者 幾何人耶? 唯退溪相公 好讀坡詩·常誦 「雲散月明誰點綴? 天容海色本淸淸.」之句 其所著詩使坡語者多矣. <松溪漫錄> 下

다 들 수 없을만큼 많았다. 허균(1569~1618)과 같은 藻鑿으로서도 퇴계의 <湖堂晩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⁶⁵⁾과 <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⁶⁶⁾를 평하여 『非惟理學, 詩亦壓倒諸公』⁶⁷⁾이라 하였으니 이는 실로 조선 詩文學史上에 퇴계의 위치를 설정한 것이다.

다만 권응인은 『만일 선생께서 澹薄한 風月과 濃黑된 草書를 버린다면 선생의 도덕이 더욱 높을 것입니다』⁶⁸⁾하여 퇴계의 시에 대하여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였으니 『풍월』은 시의 속칭이요, 영남지방에서 전하는 말에는 『다닥 風月, 납닥 글씨』로 되었는데 이에서는 『다닥』을 『澹薄』으로 『납닥』을 『濃黑』으로 기록하였다.

李瀾(1681~1763)은 권응인의 설에 대하여 『이는 不爲일지라도 不能은 결코 아니다』⁶⁹⁾하여 강력히 반대하고는 이어서 퇴계의 <題林士遂陶西行錄後二首>⁷⁰⁾를 평하여 『귀귀마다 飛動하고도 俊爽하여 비록 저 華岳의 尖峯과 豪俊한 독수리라도 이에서 지날 수 없는 바 저 錦湖(林亨秀의 號)의 평생 豪吟이라도 반드시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松溪(응인의 호)가 어찌 이 경지를 알겠는가』⁷¹⁾하여 권응인의 평을 일축하였다.

65) 《退溪先生文集》 권1 頁21

66) 全上 권1 頁20~21

67) 許筠撰 《國朝詩刪》

68) 權松溪應仁(中略)嘗言于退溪曰··『先生少止澹薄風月 濃墨草書 則先生之道德益高。』李德懋著 《靑莊館全書》 권68 <寒竹堂涉筆>

69) 當時權松溪應仁 謂『先生不爲詩若草 差強人意。』殊不知其不爲也 非不能也。李瀾著 《星湖僿說類選》 권10

70) 《退溪先生文集》 권1 頁16~17

71) 句句飛動 俊爽可掬 雖華岳峯尖 寒鷗睇野 無以逾此 彼錦湖之平生豪吟 未必逮及也 要是非錦湖 退溪亦終不露圭角 松溪何足以知之? 《星湖僿說類選》 권10